

호남 “민주 후보 찍겠다” 53.1%…한국당보다 40%p 높아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인가'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4%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2.2%에 그쳤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과 중심으로 최근 창당을 한 새로운보수당은 각각 4.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바른미래당 3.3%, 우리공화당 2.1%, 민주평화당 1.7%, 대안신당 1.3%, 민중당 1.1%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5.5%였다.

연령대별로는 ▲19세·20대(민주당 39.3% vs 한국당 26.4%) ▲30대(46.6% vs 26.1%) ▲40대(51.0% vs 25.9%)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반면 한국당은 60세 이상(29.4% vs 41.0%)에서 앞섰다. 다만, 50대에서는 자

민주당 3040세대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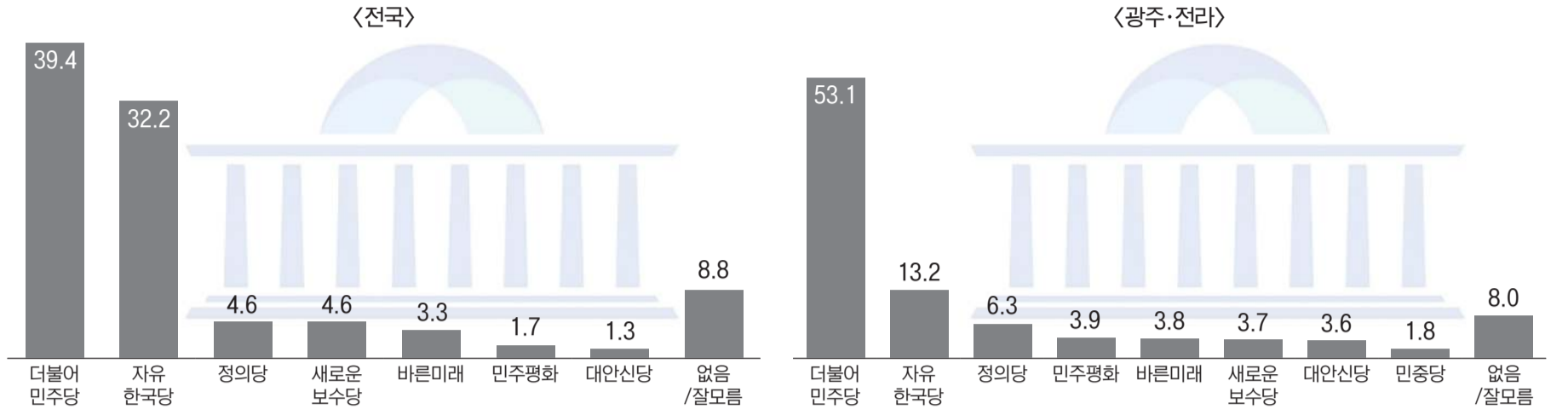
50대 오차범위내 한국당이 우세
부울경 민주·한국 37.6% 같아

유한국당이 36.1%로, 35.8%를 기록한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 우세,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민주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서울(민주당 38.4% vs 한국당 33.6%) ▲경기·인천(40.5% vs 30.1%) ▲광주·전라(53.1% vs 13.2%) ▲강원·제주(38.2% vs 33.2%)에서는 민주당이 적게는 5% 포인트에서 많게는 40% 포인트가

총선 지역구 투표 (단위 %)



지 앞서는 등 우위를 보였다. 다만, 대전·세종·충청(37.3% vs 34.9%)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29.8% vs 42.9%)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37.6%로 같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는 양 당이 선거 막바지까지 유권자를 잡기 위한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이 6.3%로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각각

3.9%, 3.6% 지지율에 그쳤다. 바른미래당도 3.8%에 머물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4.2%였고, 기타 정당 지지는 1.3%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당보다 인물·공약 보고 투표”

투표 기준

유권자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인물 자질과 정책 공약, 소속 정당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인물 자질을 우선으로 보겠다는 응답자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보의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자가 25.3%였고, 후보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4.0%였다. 또한, 이념성향을 우선하겠다는 답변은 11.5%, 지역출신 여부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답변도 2.0% 있었다.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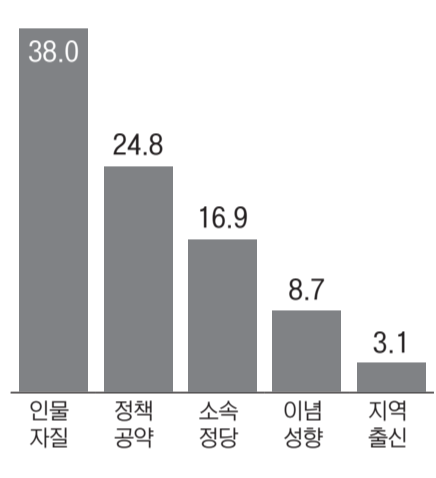
지역별로 투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인물 자질(38.0%)을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4.8%), 소속 정당(16.9%), 이념성향(8.7%)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지역도 인물 자질(35.9%)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정책공약(24.7%), 소속 정당(19.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은 소속 정당(28.4%)이 투표 기준 1순위로 꼽혔고, 이어 정책공약(25.8%), 인물 자질(24.1%) 순이었다. 경기·인천은 정책공약(27.4%), 인물 자질(27.0%), 소속 정당(24.4%)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지역은 각각 30.8%, 31.5%로 후보의 자질을 투표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이어 소속

광주·전라 투표 기준 (단위 %)



정당(24.1%·24.0%), 정책 공약(23.1%·20.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20대와 30대에서는 정책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삼은 반면 40대는 소속 정당을,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후보 자질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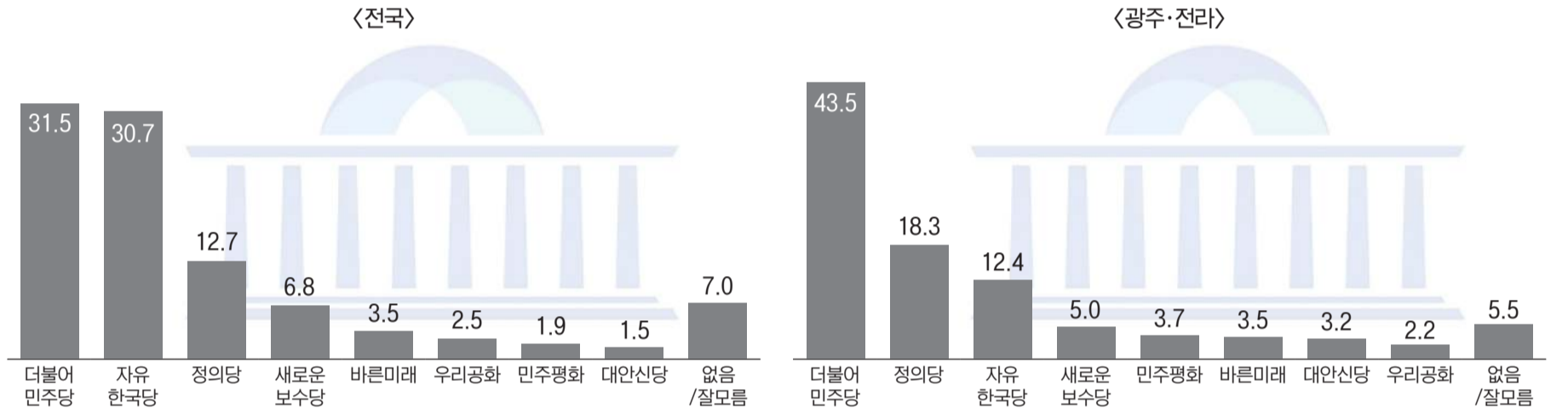
19세·20대는 정책 공약(32.4%), 인물 자질(23.5%), 소속 정당(20.8%) 순이었고, 30대는 정책 공약(32.2%), 인물 자질(25.6%), 소속 정당(22.6%) 순으로 우선 순위를 삼았다. 반면, 40대는 소속 정당(29.5%)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인물 자질(28.9%), 정책 공약(23.8%) 순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인물 자질이 각각 33.8%, 3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속 정당(24.3%·22.9%), 정책 공약(22.3%·20.0%) 순이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비례, 민주당·한국당 접전...정의당 두자릿수 지지 약진

총선 정당 투표 (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첫 시도되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의당이 두자릿수 지지를 얻으며 이번 총선에서 크게 약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이 투표하시겠습니까'는 질문에 민주당은 31.5%, 자유한국당은 30.7%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정의당은 12.7%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될

한국 31.2% vs 민주 30.6%

민주 호남, 경기·인천서 우세

정의당 호남서 한국 제치고 2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최근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이 6.8%, 바른미래당 3.5%, 우리공화당 2.5%, 민주평화당 1.9%, 대안신당 1.5%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다는 4.1%, 잘모르겠다는 2.9%였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광주·전라(민주당 43.5% vs 자유한국당 12.4%)지역과 경기·인천(32.1% vs 28.5%)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전

지역에서 박빙 우세 또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에서 31.2%의 지지율을 기록, 30.6%를 얻은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대전·세종·충청(민주당 30.9% vs 자유한국당 34.2%)과 강원·제주(29.0% vs 32.9%), 부산·울산·경남(29.5% vs 36.5%), 대구·경북(24.2% vs 41.1%)에서는 3~17% 포인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43.5%에 이어 정의당이 18.3%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2.4%)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새로운보수당도 5.0%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3.7%)과 대안신당(3.2%)을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리고 우위

를 보였고, 바른미래당(3.5%)도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19세·20대(민주당 34.7% vs 한국당 26.2%) ▲30대(37.9% vs 25.5%) ▲40대(37.9% vs 23.8%)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한국당은 50대(26.5% vs 33.2%), 60세 이상(24.7% vs 39.8%)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8.1% vs 31.9%)이 자유한국당을, 여성(34.8% vs 29.5%)은 민주당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 등 2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정당 간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대 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99번지 토지 : 1749㎡(529.1평) **감정가 1억4천5백만원 최저가 1억4천5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